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줄기상추 식용색소 긴급검사 결과 8건 모두 불검출

- 통관 단계에서도 식용색소 검사 강화
- 국내 유통 중인 제품도 식용색소 수거검사 지속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 간쑤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가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국내 유통 중인 제품 8건을 긴급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식용색소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자연상태의 농산물에는 식용색소 등 어떠한 색소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식약처는 현재 중국산 줄기상추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강화 조치(9.7)를 통해 식용색소 사용 여부를 검사 중이며, 긴급 수거검사한 8건 외에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추가 수거하여 검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가 국내에 수입됐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 중에 있다.

식약처는 중국의 식용색소 사용 줄기상추와 관련한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입 단계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 단계에서도 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철희 (043-719-2201)
		담당자	사무관	유행일 (043-719-2210)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책임자	과 장	남백상 (043-719-6251)
		담당자	사무관	최충렬 (043-719-6259)